

금성EPS, 스티로폼 공장 화재

6월9일 발생 5시간만에 진화 ... 건물 태우고 인명피해 없어

6월9일 오후 1시33분께 경기도 김포 소재 스티로폼(EPS: Expandable Polystyrene) 생산기업인 금성EPS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건물 8채를 거의 태우고 5시간여만인 오후 6시40분께 진화됐다.



김포소방서는 소방관 220여명과 소방차 50여대를 동원했으나 유독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으며, 공장 주변 다른 공장에서 휴일 작업을 하고 있던 일부 근로자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

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0>